

해남 원도심 '초콜릿 거리' 인기 이어간다

군, 27일까지 창업 지원자 모집...5000만원 지원 5개소 운영 중...“창업·매장 복합화로 상권 활력”

해남군이 인기를 끌고 있는 지역 초콜릿 매장을 확대해 원도심 상권 활성화에 나선다.

23일 해남군에 따르면 해남읍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초콜릿 거리 조성을 추진, 현재 5개소의 수제 초콜릿 매장이 문을 열어 영업 중이다.

군은 이 같은 인기를 이어가기 위해 초콜릿 거리 조성의 창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두 가지로 초콜릿 판매장을 신규로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와 기존 점포에 초콜릿 콘텐츠를 접목하는 복합매장화 사업 참여자이다.

신규 창업자에게는 최대 5000만원, 복합매장화 참여자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접수는 오는 27일까지로, 서류와 면접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서류평가에서는 사업 추진 의지, 사업 아이템의 지역성·필요성·창의성, 실현 가능성, 경쟁력,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면접평가에서는 지원금액 산정의 적정성을 추가로 검토해 최종 지원금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신청자는 총사업비의 10% 이상을 부담해야 하며, 전체 사업비에 대한 부가세는 신청자 부담이다.



초콜릿거리 창업 매장 '땅콩초코'

특히 이번 사업은 인구 유입과 로컬 인재 육성을 중점에 두고 있어, 관외에서 해남군으로 이주한 신청자에게는 3~5점의 가점이 부여되며, 추진단이 운영한 초콜릿 교육 수료자에게는 가점 5점이 추가로 주어진다.

초콜릿 교육은 현재까지 3기가 진행됐으며, 올해 4기 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다. 자세한 모집 요강과 신청서 양식은 해남군청 홈페이지 또는 해남원도심 상권 활성화 추진단 홈페이지(www.해남상권.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초콜릿 아카데미 교육

신청은 이메일 접수 또는 해남매일시 2층 상권활성화 추진단 사무실 방문 접수로 가능하며, 문의는 전화(070-8648-2272)로 하면 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해남 로컬크리에이티브 육성을 목표로 2024년부터 초콜릿을

핵심 테마로 한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 지난해말부터 5개소의 초콜릿 매장이 문을 열었다”며 “신규 창업이나 기존 매장의 복합화를 고려하고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gwangnam.co.kr

강진 '고려청자를 내 품에' 28일 청자축제 할인 경매

강진군 고려청자박물관은 제54회 강진청자축제를 맞이해 청자 50% 할인 경매를 오는 28일 개최한다.

경매행사에 앞서 경매 대상 작품의 전시회를 박물관 로비에서 지난 2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경매는 호가경매 방식으로 30~50% 저렴하게 청자를 구매할 수 있다.

이번 경매에 눈여겨 볼 작품은 대구광역시 간송미술관에 보관 중인 국보 68호 유물의 원형의 기운을 받고 재현한 청자삼강문화관매병이다. 이 작품을 재현하는 데에 같은 크기의 매병 3개를 조각하는 시간과 작가의 숨결이 들어갔다. 쉽게 볼 수 없는 작품이라 불꽃 튀는 경매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축제의 재미를 더하기 위해 반상기 2세트를 정가의 30%의 금액대에 구매할 수 있는 '진행자의 마음을 맞춰라'도 진행된다.

강진=이진욱 기자 sa4332252@

목포,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조성 본격화

산·학·관 업무협약...전문인력 양성·유지보수 체계 구축

목포시가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조성과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교육훈련센터·정비소 구축에 나섰다.

23일 목포시에 따르면 최근 목포 신항 해상풍력 플랫폼센터에서 한전KPS, KMC해운위, 국립목포대학교와 함께 목포 신항 내 풍력교육훈련센터 및 정비(shop)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목포신항을 중심으로 해상풍력 유지관리 서비스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풍력 분야 핵심기술의 국산화와

체계적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상호협력 기반마련을 목표로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참여기관들은 풍력 유지보수 인력양성 클러스터 조성 및 기술지원, 글로벌 수준의 풍력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전문교육 수료생 취업 지원, 정비서비스센터 구축, 풍력산업 기술표준화·인증 및 연구개발(R&D) 등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목포시는 행정·재정 지원과 제도 개선에 담당하고, 한전KPS는 교육장 건립과

교육과정 운영을 총괄한다. KMC해운은 현장 중심의 실습 인프라를 제공하며, 목포대는 우수 인재 모집과 양성에 힘을 보탠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해상풍력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석훈 권한대행은 “목포시가 해상풍력 산업 거점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조성과 전문인력 양성 체계 구축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목포=이훈기 기자 leek2123@

완도, 농어민 공익수당 확대·지급

완도군은 3월 13일까지 '2026 농어민 공익수당'을 신청받는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경영 안정을 위해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올해는 수당이 기존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10만원 인상됐다.

완도군에 등록된 농업, 어업, 임업 경영체는 1만5000여명이다.

신청 대상은 농업, 어업, 임업 경영 정보를 등록된 경영체로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전남도에 주소를 두고 완도군에 거주하며 실제 농업, 어업, 임업에 종사해야 한다.

공동 경영주로 등록된 경영체의 경우 1명만 지급 대상이 된다.

지원 제의 대상은 농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인 자,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 수급자,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등이다.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완도=김해국 기자 knk1831@

진도 김, 친환경 국제표준 인증 취득

지속가능 친환경 어업 생산부터 유통까지 관리

진도군에서 생산되는 명품 진도 김이 '지속가능 친환경 김 산업'을 위한 국제 표준 인증인 ASC-MSC 해조류, CoC 인증을 취득했다.

ASC는 2010년 세계자연기금(WWF)과 '네덜란드 지속 가능한 무역(IDH)'이 비영리 국제기구로 설립한 양식관리 협회이며, MSC는 지속 가능한 자연산 어업을 인증하는 국제표준이다. 수산 자원이 고갈되지 않도록 책임있게 어획된 수산물에 부여하는 인증 제도다. CoC 인증은 ASC-MSC 인증 제품을 가공, 유통,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

며,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에서 인증 제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소비자는 인증 마크를 확인해 생산부터 유통까지 투명하게 관리된 수산물을 선택할 수 있으며, 해양 환경을 보전하는데 이바지하는 가치 소비를 실천할 수 있다.

특히 ESG와 윤리적 소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ASC-MSC 인증은 안전성과 신뢰성을 모두 갖춘 소비 선택 기준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전국 최대 김 위판고를 달성해 진도군 김 산업이 고부가가치 양식산업으로 한층 더 도약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도=서석진 기자 ss9399@gwangnam.co.kr



제22회 영산강사랑사·도민

** 제10회 나주사랑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

한마음 걸기대회

2026. 3. 28. (토) 09:00~13:00

다양한 경품지급
참가자 행운권 추첨

행사장소 빛가람 호수공원
(전남 나주시 호수로 77)

참가대상 남녀노소 누구나(절차비 없음)

접수기간 2026년 2월 20일(금) ~ 3월 25일(수) 까지

접수방법 광남일보 홈페이지 배너 및 팝업창
(www.gwangnam.co.kr)

문의 광남일보 사연국 T. 062)370-7090

※ 우선 시연이 진행됩니다.
※ 위 일정은 여건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영산강 환경정화 캠페인' 참가학생에게
→ 자원봉사(1365) 2시간 인정

주최·주관: **광남일보** **도리투데이** (사)광남문화재단 **전라남도**

후원 (예전): **나주시** **나주시 임업후계자협의회**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광주광역시체육회** **전라남도체육회** **대한회심사자**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자원봉사센터**